

# '식물성' 인간들이 꿈꾸는 절대사랑

《식물들의 사생활》 펴낸 이승우씨

“주인공들은 나무가 되려는 사람들, 혹은 나무가 돼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무가 돼서도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돼 마침내 그들의 욕망을 이루죠. 그 욕망은 바로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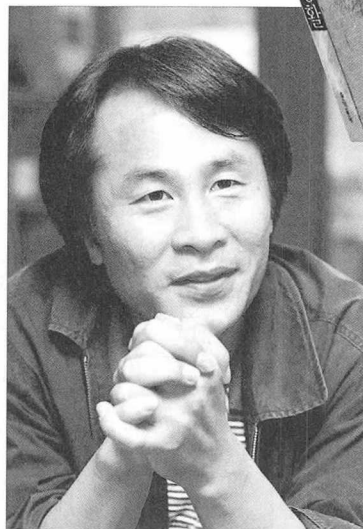
이승우씨(41)가 펴낸 《식물들의 사생활》(문학동네)은 사랑과 욕망이 나무뿌리처럼 얽혀 있는 소설이다. 그는 등단작 <에리직톤의 초상> 이후 종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 구원문제에 천착해온 작가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불구가 된 형에게 동생이 여자를 사주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번 소설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소설과는 사뭇 다른 세계를 펼쳐보인다.

### 깊고 순수한 사랑 그려

“이 작품 역시 지금까지 탐구해왔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연애소설이라는 대중적인 이야기 구조를 빌어왔을 따름이죠. 그동안 독자들에 제 작품을 너무 무겁고 어렵게만 읽어온 듯합니다. 언젠가는 그 높은 담을 허물어야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작품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주인공 '나'는 형의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나' 때문에 형은 두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된다. 그리고 그 형을 업고 사창가를 기웃거리는 어머니가 있다. 한편,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의 남자가 자리해 있고 그 어머니를 바라만 보는 아버지가 있다. 형과 '나'(동생)와 형의 여자, 그리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첫사랑과 아버지라는 두개의 삼각관계를 축으로 진행되는 이 소설은, 이들이 보여주는 어긋난 사랑의 덩쿨로 뒤엉켜 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식물을 닮았습니다. 식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승우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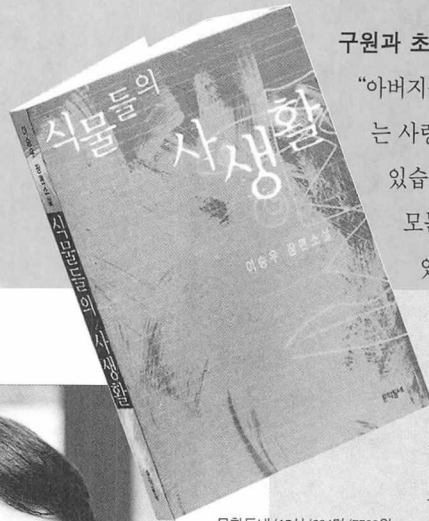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욕망과 투쟁과 질투가 들끓고 있죠. 다만 이를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 소설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것도 '욕망이라는 지방질'을 걷어낸 깊고 순수한 사랑이다. 나무가 언제나 제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듯 소설의 인물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랑과 불행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자기안에 들끓는 욕망을 제거하고 '절대사랑'이라는 순수한 식물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주인공들은 나무가 되려는 사람들, 혹은 나무가 돼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무가 돼서도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돼 마침내 그들의 욕망을 이루죠. 그 욕망은 바로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는 이런 식물성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 아버지를 제시한다. 어머니만을 바라보고 한평생을 산 아버지는 식물들과도 대화를 나누는 인물이다.



### 구원과 초월의 공간, 남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넘어서는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조연같이 보이지만 모든 인물들은 아버지를 지향하고 있죠. 아버지를 통해 신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소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에덴'이라는 공간을 달고 있는 여관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공간이다. 반면, 후반부로 갈수록 소설

의 무대는 남천이라는 신화적이고 동화적인 공간으로 이동한다. 서로 상처를 주며, 상처를 숨긴 채 살아가던 인물들은 남천이라는 곳에서 마침내 화해하게 된다. 남천은 그들에게 구원과 초월의 공간이다.

“소설의 앞부분은 추리적 기법을 활용해 긴박하게 그렸습니다. 인물들이 살아가는 통속적이고 너저분한 도시를 남천이라는 공간과 대비시키고 싶었던 거죠. 야자나무로 상징되는, 남천이 가진 구원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번 소설이 보여주는 도발적인 서사는 독자들을 소설 읽기에 흠뻑 빠져들게 한다. 또한 작품 전체에 드리우고 있는 신화적 상상력은 이 작품이 지닌 서사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한다.

“이번 소설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저의 소설적 개성을 계속 유지한 채 그 자장을 넓힐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문학에 깊이 빠져들게 했던, 문학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작가로 살게 했으니 말입니다.”

이씨는 내년쯤 그동안 발표한 작품을 중심으로 단편집을 묶을 예정이다. 지금은 yes24에서 전차책으로 선보일 소설을 구상중이다.

— 최갑수 기자